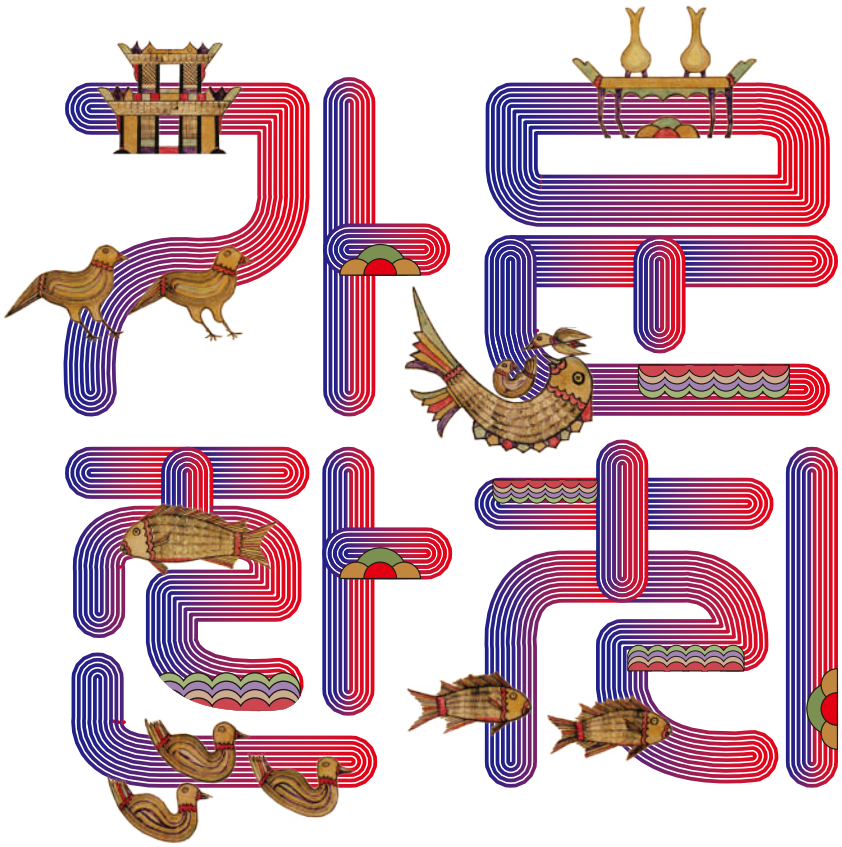
제주의 결혼문화 특별전



2022. 5. 18.Wed - 9. 30.Fri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수눌음관 특별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1950~1960년대 결혼



1950년대 초 도두리에서 촬영했다. 사진 제공자인 서근숙(도두리, 1941년생) 씨의 외삼촌(도두리, 1934년생)이 귀한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 동네잔치에 부탁을 받았다. 주인공이 누구인지 시간이 흐르고 사진도 흐려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한다. 신랑을 비롯해 나비넥타이를 맨 신랑 친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모던보이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어디서 온, 무엇 하는 사람들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서근숙, 1950년대)



1955년 결혼식. 신랑이 말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하님이 말고삐를 잡고 있다. 신랑이 말을 탈 때에는 '도고리'라는 함지박을 엎어 놓고 이를 발판삼아 타는데 말이 부르르 떨면서 방분(放糞)하면 불길하다고 하여 미리 말을 길들이기도 한다. 만약에 말이 방분했을 경우에는 신랑 모친이 재빨리 안방으로 거둬치웠다고 한다. (고순애, 1955년)



1955년 결혼식. 신부집에 도착한 신랑이 말에서 내려 발을 내려 밟도록 나무 '도고리(함지박)'를 엎어놓았다. 예장 검토가 통과되면 신랑은 방으로 걸어가는데 ᄂᆞ람지(이엉)를 깔아놓아 땅을 밟지 않도록 한다.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레드카펫이다. 신랑은 신부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왼쪽발로 지방(문지방)을 넘어야 된다는 규칙이 있다. (고순애, 1955년)



1955년 결혼식. 사모관대 차림의 신랑이 말을 타고 가는데 신랑이 타는 말은 백마이다. 백마 중에서도 웅마를 탄다(자마를 택한 지역도 일부 있다. 하지만 웅마 중에 백마가 귀하여 붉은 말을 타고 장가를 가기도 하였다. (고순애, 1955년)



1955년 결혼식. 잔치날에 하님이 홍세함을 들고 앞장서고 신랑이 사모관대 차림으로 옹마를 타고 나서는데 거리가 멀면 말을 타고 간다. 신랑의 고삐를 잡아 이끄는 하님은 "호옹~"하는 청량한 소리를 내며 신부집에 다다르게 된다. 이 "호옹~"하는 소리를 권마성(권마성)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가 나면 마을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나와서 본다. (고순애, 1955년)



1955년 결혼식. 전통적인 혼례행렬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갈 때와 신랑이 솔부(率婦)해서 신부 집에서 신랑집으로 갈 때가 다르다. 이 사진은 신랑 말을 하님이 끌고 있고, 다음으로 하님들이 멘 가마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고순애, 1955년)



1955년 결혼식. 신랑과 신부가 신랑댁에 도착하면 신랑댁은 잔치 분위기가 고조되어 술렁인다. 하객들이 모여들고 잔치가 제대로 벌어진다. 신부가 탄 가마가 보통 난간에 내려지고 가마의 문은 신랑이나 신랑 부친이 여는게 관례였다. 이 사진에서는 신랑이 가마문을 열어주고 가마에서 나온 신부가 손을 올려 예를 갖추고 있고 옆에 들러리가 신부를 보좌해주고 있다. (고순애, 1955년)



1955년 결혼식. 신부집에 이르러 신랑측 친족대표가 납폐함을 드리는데 '홍세함[혼서함]'을 말한다. '홍세함'을 문전의 상 위에 놓고 예장을 검토한 다음 양가의 대표가 인사를 나눈다. 이를 문전코시[문전고사]라 하는데 대체로 '난간'이나 대청에서 이루어진다. 예장 검토는 엄격하여 착오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새로 작성하기 위해 붓과 종이를 준비해 간다.
(고순애, 1955년)



문자도(文字圖)병풍을 세워 찰영한 결혼기념사진이다. 문자도 병풍은 아직까지도 아주 귀중한 병풍에 속한다. 군자의 행동 행동지침인 8가지 덕목 효(孝)·제(悌)·충(忠)·신(信)·예(禮)·의(義)·염(廉)·치(恥)을 가리키는 글자와 동식물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강재길의 부모인 강봉삼, 오화생 결혼기념 사진, 1959년)



1959년 구좌읍 하도리에서 열린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다. 신랑 신부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에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서양식 결혼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김인보, 김화자, 1959년)



1959년 구좌읍 하도리에서 열린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다. 결혼 예복으로 양복과 드레스를 착용하였고, 교회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목사님을 주례로 모셨다고 한다. 사진에는 신랑·신부와 부신랑·부신부, 화동이 모습이 보인다. (김인보, 김화자, 1959년)



신랑집으로 떠나기 전 신부집의 모습이다. 신부 들러리가 허리를 숙여 신부의 치마저고리를 매만져주고 있다. 흰색의 한복과 얼굴을 충분히 가리고도 남는 풍성한 면사포, 그 안에서 실루엣으로 살짝 비치는 고개 숙인 신부의 자태가 청초하다. 신랑과 신부의 어머니는 친구 사이였다. 동네 친구가 사돈이 되었다. 서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봤고, 아이들은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었기 때문에 마치 아들과 딸 같았다. (박봉찬, 1967년 4월 22일)



식을 올렸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 5일잔치로 두 번의 '사돈잔치'가 남아있었다. 양가 사돈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의례였다. 두불잔치(두 번의 잔치라는 의미)라고도 불리며 하루는 신부집에서, 또 하루는 신랑집에서 치렀다. 첫날은 신랑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신랑과 신랑 아버지, 동서나 시누이가 신부와 함께 신부집으로 가서 사돈잔치를 했다. 갈 때는 술과 쌀, 돼지 한 다리를 대구덕에 넣고 갔다. 신부집에서도 신랑집에서 가지고 온 대로 장만하여 다음 날 신랑집으로 왔다. 밤에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남은 음식으로 잔치 뒤풀이를 했다. 위의 선배 대까지는 신랑 발바닥을 때리며 노는 '신랑다루기'가 있었는데 박씨가 혼인할 당시에는 노래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박봉찬, 1967년 4월 22일



결혼 전날인 가문잔치 날에는 한눈에 봐도 잔칫집임을 알게 해주는 솔문을 세운다. 신랑·신부의 이름을 써넣고 장식한 문으로 신랑 친구들이 신랑집에 하루종일 머물며 놀면서 산에서 대나무와 소나무를 베어와 만들었다. 친구들이 하는 일 중 하나였다. 예전에는 유교 관념에서 신랑집은 청렴결백을 상징하는 대나무로, 신부집은 여성의 정절을 상징하는 소나무로 문을 세웠다는데 박씨 경우에는 섞어 만들었다. 신랑 신부의 집이 100m가 채 되지 않았다. 신부를 데리러 갈 때는 노람지를 깐 길을 걸어서, 돌아올 때는 시발택시를 탔다. 100m를 타고 내리기에는 들인 비용이 아까웠다. 마을을 크게 한 바퀴 돌며 드라이브했다. 신부가 크게 웃으면 안 되는 날인데도 그 상황이 너무 웃긴 나머지 자꾸 웃음이 터졌다고 한다. (박봉찬, 1967년 4월 22일



한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다. 소 먹이러 가서, 혹은 부모님 따라 검질 매러 가서 늘 보아왔던 박봉찬(장전리, 1943년생) 씨와 고옥자(장전리, 1947년생) 씨가 4년 교제 끝에 천생연분 백년가약을 맺었다. 5일잔치로 돼지 잡는 날, 가문잔치 날, 잔칫날, 신부집 사돈잔치, 신랑집 사돈잔치의 순서로 진행됐다. 예전에는 이레잔치(일뤠잔치)로 일주일에 걸쳐 잔치가 이루어졌다. 혼인을 흔히'잔치'라고 표현했다. 사진은 잔치 셋째 날로 결혼식 날 아침이다. 신랑 박씨의 작은아버지가 신랑측 우시(上客) 대표로 홍세함을 들고 신부집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다. 착오가 있을 때를 대비해 필연(筆硯)과 종이를 준비해 간다. (박봉찬, 1967년 4월 22일



하귀사진관에서 빌려온 만국기가 신랑집 마당에 펄럭이고 있다. 결혼식 전 풍경이다. 신부 들러리는 오가는 하객들이 혹여라도 넓고 긴 면사포를 밟을까봐 면사포 끝자락을 들고 서 있다. 바닥에는 레드카펫을 펼친 듯 흰 광목천을 깔고 그 위에 솔잎을 뿌려 놓았다. 미리 청첩장을 100부 인쇄해 발송했다. 그런데 청첩장에 적힌 주례선생에게 갑자기 일이 생겼다. 당시 수협제주도지부장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었던 이인구 선생이 감사하게도 주례를 대신 서주었다. (박봉찬, 1967년 4월 22일



신부가 신부상을 받기 위해 초가집의 풍체(차양) 아래를 지나 집 안으로 오르고 있다. 신부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아슬아슬하게 아기를 안고 몸을 기울인 아주머니의 자세에서부터, 어깨춤이라도 들썩일 것 같은 표정과 몸짓의 할머니들 모두가 즐겁다. 특히 신이 난 아이들이 마당 안으로 모이고 있다. 잠시 후 대반이 신부가 뜨다만 식게나 명절 때나 먹는 곤밥(쌀밥)과 삶은 달걀을 나눠줄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에서는 신부상에 꼭 삶은 달걀 3개를 올렸다. 달걀은 일뤳당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하고 희고 고운 피부를 가진 아기를 점지해달라는 의미도 있었다. 1970년대부터는 '독새기고기튀김(스카치에그)'으로 대체되었다. (박봉찬, 1967년 4월 22일



제주에서 병풍은 중요한 생활용품이었다. 잔치와 제사는 물론, 굿을 할 때도 병풍을 배경 삼았다. 신부집 마당에 병풍을 쳤다. 아니 들었다.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붙잡고 적당한 높이로 들고 있어야 한다. 미처 몸을 다 가리지 못한 이웃의 모습과 병풍을 들고 있는 손이 정겹다. 신부 고씨의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아버지를 잃은 것은 고씨가 3살 때였다. 자신을 '처녀농군'이었다고 소개했다. 쇠촐도 놀고 소도 직접 끌며 밭도 갈았다. 어머니에게는 남편 같은, 아들 같은 딸이었다. 당시 혼수로 옷장 1개, 어머니 멘네(목화)밭에서 재배한 솜으로 만든 이불 3채와 방석, 베개 2개를 장만했다. (박봉찬, 1967년 4월 22일



신랑측 친척들과 찍은 사진으로 모두 가슴에 꽃을 달고 있다. 생화가 귀해 종이로 꽃을 만들기도 했다는데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1967년 결혼 당시에는 오리엔트 손목시계가 유명했다. 그렇지만 결혼 당시에는 예물 교환을 하지 못했다. 2년 후 돈을 벌어 장만했다. 시계는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부인의 금반지는 사라지고 없다. 초살림은 힘든 법이다. 부인 고씨가 어느 날 남편 모르게 반지를 팔아 살림에 보탰다. 박씨는 한참 후에 이 사실을 알고 많이 마음 아파했다.
(박봉찬, 1967년 4월 22일



솔문 앞에 3대가 모여 찍은 가족사진이다. 박씨는 3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은 배고픔의 연속이고 살기가 어려웠다. 박씨에게 밀채 범벅, 풋보리밥, 맨발 등의 단어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가난 탈출 방법이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돈을 마련하지 못해 상급학교 진학 때마다 1년씩 늦어졌지만 당당히 제주농업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경찰공무원으로 33년간 일했다. (박봉찬, 1967년 4월 22일)



1967년도 강병언(장전리, 1944년생) 씨와 김양옥(광령리, 1946년생) 씨 결혼사진이다. 양복과 치마저고리에 면사포를 쓰고 택시와 버스를 대여했다. 5일잔치를 하고 부모님과 한 지붕 아래서 3년 살다 독립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에서는 밖거리를 마련해 초살림(신혼살림)을 꾸릴 수 있도록 해주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다. 연애결혼이었다. 강씨는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강씨 샛누님이 "광령 사는 여자가 장전리 이모 댁으로 놀러 왔는데 삼일 동안 동네 총각들이 빠짐없이 여자를 보러 간다"며 그 집에 가보길 권했다. 가보니 과연 예쁘고 마음에 들었다. (강병언, 1967년 10월 21일)



1970~1980년대 결혼



중요한 예장을 전달하는 만큼 우시대표는 엄숙한 얼굴을 하기 마련인데 박씨는 원래 흥이 많고 잘 웃는 성격이었다. 형으로서 동생의 결혼을 축하하는 기쁜 마음을 도저히 감출 수 없어 표정에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우시는 친족을 대표해서 신랑과 신부를 데리고 가서 사돈과 상견례를 맡은 사람을 말한다. 신랑측에서는 문장 능력이 있고 모든 면에서 대처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낸다. 대개 친가에서 한 쌍, 외가에서 한 쌍이 참가하는데 부부 중심으로 갔다. 의좋고 다복한 사람이 선호되고 상주와 과부, 재혼한 사람은 제외됐다. (박영철, 1970년 10월)



신랑집은 장전리 뒷동산, 신부집은 신랑집에서 약 1.5Km 떨어진 웃동네였다. 박씨는 동생(박영호, 1955년생) 결혼식에 우시 대표로 홍세함을 들게 되었다. 혼례에서 가장 중요한 막펜지(마지막 편지)라고 불리는 예장을 시렁목 1필이나 광목 1필과 함께 넣어 홍색 보자기로 싸고 매듭은 한지로 돌려 묶었으며 신랑 부친 도장을 찍었다. 중요한 예장인 만큼 신부측에서는 엄격하고 까다롭게 살펴봤다. 가문끼리 맺는 대사라 가문의 우월성 내지는 현존하는 사람들의 뛰어남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하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시(상객) 갈 사람도 엄선했다. (박영철, 1970년 10월)



함받기 하는 사진이다. 신부측 친족대표는 마루 위에서, 신랑측 대표는 마루 아래에 서서 신부측이 내민 홍세상 위에 홍세함을 올려놓고 있다. 신랑집에서는 결혼식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에 예장을 쓴다. 신랑이나 신랑 아버지가 쓰지만 집안 친척 중에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쓰기도 한다. 신랑집 현관 쪽에 상을 차려 제물을 진설한 다음 홍세함을 상 위에 놓고 문전제를 지낸다. 그런 다음 신랑과 우시 일행이 신부집으로 홍세함을 가지고 출발한다. 신부집에서는 현관문 가까이에 홍세함을 올릴 상과 돼지머리 등을 준비한다. 홍세함이 상에 올려지면 분향, 잡식하는데 이를 '문전코시'라고 한다. 시렁목(무명)의 실밥 몇 올을 풀어 잡식하는 것 역시 문전신에게 예물 들어온 것을 고하여 바치는 것이다. (박영철, 1970년 10월)



혼례와 관련된 행동과 금기 사항이 있었다. 혼례날 신부가 신랑집으로 가서 상을 받기 전에 시어머니 얼굴을 보게 되면 서로 '숭벗어진다(정떨어진다)'하여 피했다.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양가의 어머니들은 신랑이나 신부가 온다고 하면 부엌으로 몸을 피하기 바빴다. 신부는 친정에서 나설 때 오른발을 먼저 내딛게 하고 신랑집 방으로 들어설 때 역시 오른발을 먼저 내딛게 했다. (박영철, 1970년 10월)



장식 없는 밋밋한 택시에서 신부가 내리고 있다. 당시 시내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시골에서는 신랑신부차를 오색테이프로 꾸미거나 깡통을 달거나 꽃장식 하는 등의 일은 상상도 못 할 때였다. (박영철. 1970년 10월)



1970년도에 결혼했다. 박영철(장전리, 1947년생) 씨가 신부 강영옥(수산리, 1949년생) 씨를 데리고 신부집을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박씨는 농사를 짓고 있었고 신부도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짓던 평범한 여자였다. 중매였고 5월에 미리 약혼식을 했다. 양복과 한복을 입었고 신부집으로 남자측에서 박씨와 박씨 아버지, 사촌형님 내외가 갔다. 구덕에 돼지 앞다리 1개, 술 1되, 쌀 1말을 가지고 갔다. 약혼식을 끝내고 두 사람은 사라봉과 모충사를 돌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10월에 결혼식을 했다. 신부 혼수품으로 궤 1개, 미싱 1개, 이불 3채, 베개 2개가 있었다. 이후 1남 3녀를 두었다. (박영철. 1970년 10월)



박영철(장전리, 1947년생) 씨가 신부 강영옥(수산리, 1949년생) 씨를 데리고 신부집을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박영철, 1970년 10월)



시내에 가서 소위 '빽'을 써가며 차를 어렵게 구할 때였다. 박씨 경우에는 운 좋게 동네 초등학교 친구가 택시운전사이고 역시 동네 친구 형님이 버스운전사여서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었다. 장전리에는 당시 버스가 다니지 않아 차 구경이 쉽지 않았다. 그러니 아이들의 관심사는 자동차였다. 신기한 듯 주변에 모였다. 잔치날 하는 놀이로 '넉둥베기'가 있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고 바로 돌아가지 않고 마당 한켠에서 작은 윷을 멍석 위로 던지며 왁자지껄 잔치를 즐겼다. (박영철, 1970년 10월)



신부가 떠난 신부집은 왠지 허전하다. 사돈잔치가 이틀 남아있다지만 사돈끼리의 인사로 신부가 신랑집으로 떠나고 나면 사실상 신부집 잔치는 끝난 것으로 보면 된다. 이와 반대로 신랑집은 결혼식 날이 잔칫날이 된다. 신부집 잔치는 결혼식 전날에 하는 '가문잔치' 날이다. 말 그대로 일가친척을 위한 잔치 날로 가문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한다. 신부가 있을 때 얼굴 보면서 축하 인사도 건네고 부조금도 전달했다. 대접하는 대표 음식으로 '가문반'과 '몸국'이 있었다. (박영철, 1970년 10월)



꽃다발을 각각 들고 있는 신랑·신부가 올레길을 따라 나오고 있다. 교제 당시, 작은 마을이라 데이트가 쉽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남녀가 함께 다니면 금세 소문이 돌아 좋지 않았다. 남자가 말만 걸어와도 사귀는 사이 혹은 좋아하는 사이라는 말이 돌았다. 사람들 눈을 피해 제주시내로 나와 칠성통에 있는 영화관(제일극장)과 다방에서 나름 낭만적인 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하귀까지 걸어가서 하루에 몇 번 없는 버스를 기다리고 찾아가던 시절이었다. 흑백의 무성영화, 이따금 필름이 끊기고 그때마다 야유소리와 함께 휘파람 소리를 내곤 하던 영화관이었다. 영화 제목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영철, 1970년 10월)



같은 마을 사람끼리 통혼하는 비율이 높았다. 고창규(장전리, 1938년생) 씨와 강선옥(장전리, 1939년생) 씨는 장전리의 한 동네, 동·서녘 이웃집에서 살았다. 1960년 고씨의 친척 할아버지 중매로 전통 혼례를 올렸다. 당시에는 혼례라 하고 새서방(새시방)·새각시라고 불렀다. 고씨는 22살, 군인 신분으로 15일 휴가를 받고 나와 혼례를 치렀다. 새서방은 사모관대, 새각시는 오색 원삼에 족두리를 쓰고 큰댕기를 드리웠다. 서구 문물의 영향 탓인 듯 가슴에는 커다란 종이꽃을 달았다. 혼례복은 마을 관복계에서 빌리고 말과 가마는 필요가 없었다. 바로 옆집이라 걸어가면 되었다. 대신 새각시집까지 가는 길에 노람지를 깔았다. (박영철, 1970년 10월)



1975년도, 양길철(수산리, 1955년생)씨 작은누나의 결혼식 사진이다. 신랑은 예장 검토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전날 내린 비로 땅이 질퍽해 식구들은 미리 바닥에 널빤지를 깔아두었다. 1월이었다. 초가집 대청마루가 추워 잔치 내내 멍석을 깔고 잔치를 했다. 누나는 동문시장 한복집에서 바느질 일을 하고 있었다. 오현로에 있는 중앙예식장에서 식을 올렸다. 잔치에 쓸 술은 미리 한일소주에 주문했다. 술춘이라는 술항아리로 술이 도착하면 그 술을 다시 됫병에 담아 하객들에게 제공했다. (양길철, 1975년 1월)



사진 제공자인 고창규 씨의 사촌 동서인 고남택(장전리, 1937년생) 씨의 1965년도 전통 혼례 사진이다. 혼례식은 신랑집 마당에서 치렀다. 병풍 빌려오기, 사진 찍는 동안 배경이 되는 병풍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기도 중요한 일이었다. 사진 속 새서방은 방한모로 사모 안에 남바위를 쓰고 있다. 고씨 집안 3대가 모여 가족사진을 찍었다. 바닥 양쪽에는 동백나무 가지를 꺾어 만든 키 작은 화환이 두 개가 놓여있다. '친족대표'와 '친우대표'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고광택, 1976년)



결혼식 아침, 삼양1동 신랑집에서 신랑(김영훈, 1948년생)과 사촌형님, 우시 일행이 동문시장 안에서 살고 있는 신부집으로 출발하고 있다. 신랑부친이 신부부친에게 편지 형식을 써 보내는 예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사촌형님은 육군 대위 출신으로 신랑 김씨와 몇 살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젊지만 큰집의 장손이어서 신랑측 우시대표가 되었다. (고미선, 1976년 1월 16일)



1976년도에 결혼했다. 고미선(제주시. 1954년생)씨 집은 동문시장 안이었다. 1960년대에 배 모양의 동문시장상가가 지어졌다. 동양극장이 들어서고 포목점, 신발가게, 양품점, 국수가게 등등으로 상가가 채워졌다. 장을 보기 위해 혹은 혼수품을 장만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안은 언제나 북새통이었다. 시장 서쪽 오현단에는 식수로 쓰는 가락쿳물이, 북쪽에는 해병탑이 있는 동문로터리와 산지천, 부두가 있었다. 귀빈은 비행기를 서민은 배를 이용하고 버스에는 여차장이 있었다. "오라이~!"라고 큰소리로 외치면 만원 버스가 떠나던 시절이었다. (고미선, 1976년 1월 16일)



고씨는 학창시절 돈이 없어 경주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 유적지가 많은 경주는 꼭 가보고 싶었다. 고등학교 선생이던 고지식한 신랑이 "신혼여행 가는 사람 보지 못했다"고, "신혼여행을 가면 남들이 뭐라 할 거"라며 반대를 했다. 칼호텔에서 1박하고 다음날 산소를 찾은 게 전부였다. 3일잔치였다. 신부는 병무청에 다니며 생활비와 동생들 학비를 대고 혼수 장만도 했다. 이불장 1개, 찬장 1개, 화장대 1개, TV 1대, 책상 1개, 이불 4채, 차렵이불 2채, 그릇류, 석유곤로 1개였다. 시댁 예단으로는 시부모님 이불 1채, 남녀 양말과 버선 100켤레를 했다. (고미선, 1976년 1월 16일)



19살에 신부 김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남겨진 5녀 1남의 자식들을 홀로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딸은 그런 어머니를 출산 때 부를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무슨 죄라고 시집간 딸 집까지 와서 고생하느냐는 독립심이 강한 딸이었다. 광령에서처럼 시집와서도 보리고 콩이고 갈았다 하면 1등이었다. "이 집은 되려고 하니까 던져두어도 된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농사를 잘 지었다. 사진은 오빠가 아버지 자리를 대신해 홍세상 앞에서 신랑측 친족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옆에는 돼지머리가 올려진 문전상이 차려져 있다. (고미선, 1976년 1월 16일)



신부 김일자(광령리, 1957년생) 씨가 떠나기 전 어머니가 차려준 마지막 밥을 먹고 있다. 김씨는 광령3리가 고향으로 5녀 1남 중 셋째딸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벼(산듸)농사와 유채농사를 했다. 밭벼로 파종과 밭매기가 힘들어 부지런하지 않으면 경작할 수 없는 작물이었다. 김씨는 부지런하고 손이 빨라 일이라면 일등이었다. '한때 주름잡던 몸'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만큼 일이라면 자신이 있었다. 훗날 가정경제에 크게 일조를 하게 된다. 신랑은 소개해준 사촌오빠 말대로 착한 사람이었다. 착한 거 빼고는 정말 볼 게 하나도 없는 가난한 고씨를 만나 1977년도에 결혼한다. (고동규, 1977년 5월 22일)



붉은색 한복으로 갈아입고 친정 식구들을 떠나보내기 위해 올레로 나온 걸음이었다. 마냥 설레고 행복한 마음이었는데 삼촌이 떠나며 건넨 한 마디, "이젠 이디가 너 살디여, 우린 감쪄이"라는 말에 갑자기 울컥해지며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왼쪽에 서 있는 큰동서의 활짝 웃는 표정과 대조되고 있다. (고동규, 1977년 5월 22일)



신부가 신랑 친구들이 미리 색색의 종이테이프로 천장을 장식해 꾸며놓은 신부방에서 신부상을 받는 사진이다. 리사무소에서 식만 치르고 하객접대는 집에서 하던 시절이다. 상차림은 풍성하나 신부는 밥을 조금씩 세 숟가락 떠먹는 정도로 시늉만 하고 이내 그만두었다. 입을 크게 벌려 먹거나 많이 떠서 먹으면 동네 놀림감이 될 우려도 있고, 종일 긴장 상태여서 잔칫날은 거의 먹지 못했다. 신랑 역시 마찬가지였다. 큰상을 받는 것 자체로 만족해야 했다. (고동규, 1977년 5월 22일)



이른 아침 이웃 여자 삼촌 몇이 구경꾼으로 나와 있다. 마당 군데군데 높게 쌓여있던 쇠눌(촐눌)이 겨울과 봄을 거치면서 바닥까지 내려가 있다. 이 쇠촐을 먹은 소는 겨우내 쇠막에서 비육해졌을 것이다. 예전에는 눌의 수를 보고 부(副)를 가늠해 딸을 시집보내기도 했다. 오른쪽 구석에 상이 세워져 있다. 마당에 천막을 치고 멍석 깔아 축하객을 받기 위함이었다. 상이나 그릇류는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그릇제(契)에서 빌렸다. 혼수로 이불 3채, 방석, 카펫트, 담요 등을 했다. 답례품으로 버선을 나눠줬다. (고동규, 1977년 5월 22일)



상 위에 놓인 밥공기와 국그릇이 지금과 비교해 2~3배 커 눈길을 끈다. 1981년도, 김일자(광령3리 출신, 1957년생)씨가 큰집 조카 결혼 때 성펜권당(夫系親)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우시(상객) 갔을 때 모습이다. 제주도는 육지와 달리 우시 중 한두 사람은 외펜권당(外戚)이 참여한다. 신부상은 아무나 드는 것이 아니었다. 다복한 손위 동서나 예펜삼촌(숙모)이 일을 수행하고 신부상은 아무리 무거워도 일단 들면 신부 앞에 놓일 때까지 절대로 내려놓아서는 안 되었다. (고동규, 1977년 5월 22일)



귀댁의 따님과의 결혼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사주단자를 비교해 서로가 좋은 날을 택하여 본 즉 5월 22일이 길하여 혼인예식을 행하고자 한다는 편지 형식의 예장이었다. 친족대표인 작은아버지가 엄숙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육지와 달리 제주에서는 여자집에서 남자집으로 사주단자를 주고 택일한다. 결혼식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에 쓰고 홍세함을 준비한다. 예장은 신랑이나 신랑 아버지가 쓰는 것이나 친척 중에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쓰기도 한다. (고동규, 1977년 5월 22일)



신랑이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고씨는 이름 없는 이발소와 점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날도 직접 머리 손질을 했다. 드라이기가 나오기 전이었다. 주둥이가 동그란 여자용 고대기와 달리 남자용 고대기는 오리 주둥이처럼 납작하게 생겼다. 고대기로 스타일을 내고 포마드로 광을 냈다. 당시까지는 현금거래라는 게 없었다. 과자, 라면, 술, 심지어 학용품까지 외상이었다. 보리나 콩, 고구마를 내다 파는 시기가 되어야 비로소 마을에 돈이 돌았다. 이때 받지 못하면 다음은 없었다. 하지만 이런 일로 다툼이 생기지 않았다. 다 그러려니 서로서로 정이 넘치게 살았다. (고동규, 1977년 5월 22일)



집마당에서 전문예식장으로 결혼문화가 바뀌었다. 시골에서는 리사무소의 회의실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교통편이 열악해 시내 미용사가 드레스와 면사포, 부케 등을 가지고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 왔다. 신부는 햇볕 아래서 밭일만 해와 거친 피부였다. 난생처음으로 미용사가 해주는 마사지를 받아봤다. 결혼 5년 차일 때였다. 어느 날 남편이 영혼결혼식으로 인연이 된 양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이 집에 나보다 5년 나중에 들어와시난 어머니는 제 후배우다예~. 약속허게 마시. 우리는 다른 시어멍, 메느리와 다르난 할 말 이시믄 앞에서 허꼭 뒤에서는 말게예~"라며 손가락 걸었다. 이 말을 들은 양모가 울었다.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다. 서로 인연이 되어 함께 살다 93세에 돌아가셨다. (고동규, 1977년 5월 22일)



큰상인 신랑상을 받고 얼굴이 활짝 개었다. 밖에서 긴장했던 얼굴과 비교가 된다. 시계와 금반지로 예물 교환을 했는데 당시 처녀들은 반지계(契), 그릇계를 조직해 혼수를 마련하였다. 신랑상·신부상은 독상으로 일생에 받는 가장 큰상(ㄱ진상:갖은 음식을 갖춘 상)이다. 이러한 상을 받은 신랑과 신부는 밥과 국을 조금씩만 먹고 남기는 게 예의였다. 여자 우시는 남은 음식을 싸 가져가 혼주에게 전달했다. 사돈댁 잔치 음식이라 공개하며 일하는 동네 사람들이나 근친들과 나누어 먹었다. 음식에 대해 품평도 했다. 신랑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동규, 1977년 5월 22일)



대반(중방)이 앉아 신부를 거들었다. 자격 조건이 있었다. 어느 정도의 재력과 남편, 아들, 딸을 두루 갖춘 복 많은 여자여야 했다. 대반은 신부의 밥뚜껑을 열고 밥 세 수저와 그 외 음식을 떠서 상 밑에 놓는 '코시'를 했다. 잡귀의 범접을 막는 행위이다. 언니가 여자 우시 대표로 오면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다. 어린 조카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숟가락 가득한 밥을 입안에 넣고 있다. (고동규, 1977년 5월 22일)



신부집에서의 행사가 끝나면 신랑 일행과 신부 측 우시들이 신랑 집에 와서 또다시 신랑 측 근친들과 신부집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돈끼리 인사 나누며 사돈열맹을 한다. 요즘에는 혼인날 서로 한자리에 모여 사돈열맹과 사돈잔치를 겸하여 실시하고 있는 경향이다. (김원순, 1979년 12월 24일)



예식을 마치고 신랑집에서 신부가 신부상을 받은 모습이다. 김원순(제주시) 씨 부부는 1979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에 결혼했다. 제주시 버스터미널 2층에 위치한 금탑예식장이었다. 택일 후 예식 한 달 전에 혼수와 예물을 준비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예비신랑과 예비신부는 칠성통 정금사에서 각자의 예물로 다이아반지와 세이코 시계를 구입하고 예비신랑은 양복과 구두를 구입했다. 예비신부는 이불, 장롱, 책상, 찻장을 혼수로 준비하고 시어머니 한복 한 벌과 시동생 양복 한 벌, 시누이에게는 돈을 준비했다. 청첩장과 청첩 신문광고도 냈다. 식구들은 손님맞이를 위해 집안 도배와 집 주변 정리, 방석빨래도 미리 해두었다. 3일잔치였다. 가마솥과 밥사발, 국사발, 장종지, 반찬접시, 쟁반, 수저 등을 그릇제에서 수량과 상태를 잘 파악해서 빌려와 사용했다. (김원순, 1979년 12월 24일)



사돈열맹은 먼저 신부집에서 진행된다. 간소한 주안상을 차려 신부를 데리러 간 신랑과 신랑 측 우시(상객)와 신부의 부모·조부모·삼촌·고모·삼촌·이모 등 남녀친척 다수의 성펜궨당(父系親)과 외펜궨당(外戚)이 소개되는데, 서로 인사를 한 뒤 간단히 술잔이 오간 다음 하직 인사를 한다. (김원순, 1979년 12월 24일)



결혼식 전날 신랑은 부신랑과 친구 몇 명을 대동하여 신부집으로 인사를 갔다. 며칠씩 이어지는 하객들의 접대를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도맡아 하기는 힘들다. 제주에는 '부신랑' '부신부'가 있어 이들을 돕는다. 신랑·신부의 절친 중 미혼인 한 명이 각각 맡아 크고 작은 심부름은 물론, 축의금을 대신 받아 정리하거나 동네 어른이 따라주는 술도 대신 마신다. 사교성도 좋아야 하며 결혼식 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해줄 수 있어야 했다. 신부 친구들이 기대하는 날로써 '손수건 팔기'가 있다. 이 행사를 통해 다음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이 사진은 결혼식 후 친구들과 함께 오라골프장으로 드라이브를 간 모습이다. (김원순, 1979년 12월 24일)



식을 마친 신랑 신부 친구들은 제주말로 '들러리 간다'라 하여 드라이브를 떠난다. 요즘은 미리 풍광 좋은 곳을 골라 웨딩 촬영을 하지만 예전에는 드라이브 가서 야외 사진을 찍었다. 오라골프장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었다. 신부 부케 던지기를 했다. 뒤로 던진다는 것은 다음 사람에게 결혼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었다. 드라이브가 끝나 신랑집에 도착하면 '사돈열맹'이 이어진다. 사돈끼리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신부가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린다. 제주에서는 육지와 달리 폐백이 따로 없다. 호텔나이트에서 친구들과 뒤풀이를 하고 다음 날 아침 신혼여행지인 서울을 향해 비행기에 올랐다. (김원순, 1979년 12월 24일)



제일 가깝게 지내는 뒷집 친척 삼촌이 흥에 겨워 춤에 심취해 있다. 악기랄 것도 없었다. 장구와 허벅이면 그만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웃이 권당이고 사돈이고 삼촌이었다. 서로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던,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삶이었다. 잔치가 끝나고 난 후 저녁 8시 무렵, 동네 이웃들과 친척들이 흥겹게 노래하고 춤추며 밤늦게까지 여흥을 즐겼다. 두 사람의 혼사를 치르느라 수고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였다. (박승석, 1981년 3월 2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기 위한 신부들의 노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신부는 편한 자세로 누워 화장을 받고 있다. 신부 머리맡에는 미용사의 메이크업 제품들이 플라스틱 용기 안에 한가득 담겨있고 당시 혼수이불로 유명했던 고려이불백화점 종이가방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 이불을 장만한 듯하다. (박승석, 1981년 3월 2일)



대청마루에서 '사돈열맹'을 하고 있다. 신랑집 일행이 신부집에 도착하면 신부집은 정중히 집안으로 맞아 상호 인사를 나눈다. 신랑 아버지와 신부의 숙부가 서로 맞절하고 있다. 식사와 술잔이 오가게 되면 자리가 한층 흥겨워진다.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서로 화합하고 친목을 도모하게 한다. 결혼 당일 신랑집과 신부집은 아침부터 하객들을 맞이하기에 여념이 없다. 시장통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붐빈다. 하객들에게 접대하는 아침 식사를 '초불밥'이라 하여 식을 거행하기 전까지 대접한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하객접대 음식으로 곤밥(쌀밥)과 무국, 고기반(돼지고기 석 점, 둠비 한 점, 순대 한 점)에 김치나 간장이 대부분이었다. 마을에 따라서는 몸국, 고사리국(육개장)을 대접하기도 했다. (박승석, 1981년 3월 2일)



신랑 아버지와 신부 어머니가 맞절하며 서로 사돈이 된 것을 축하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시골이라 하더라고 잔치 후 이틀 걸리던 사돈잔치가 당일 날 사돈 열맹하는 것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신혼여행 떠나는 신랑 신부들이 생기면서 생략되기 시작했다. 사돈열맹이란 양 사돈 간의 상견례로 양가 합동의 잔치인 셈이다. 사돈간에 우애를 다지고 권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고, 식장에 오지 못하는 친척들을 위해 미리 인사를 하는 것이다. (박승석, 1981년 3월 2일)



결혼식과 피로연이 끝난 후 저녁에 동네 어른들이 모여 결혼 축하 뒤풀이를 하는 모습이다. 어머니가 맺은 의형제 부부가 장구를 치고 신명 나게 춤을 추고 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의형제 맺는 게 유행이었다. 박씨의 학창시절 학생들 사이에서는 '에스언니', '에스오빠'가 유행이었다. (박승석, 1981년 3월 2일)



1970년대 들어 월남치마가 크게 유행했다. 길이가 길고 알록달록 화려한 무늬가 있는 일자형 통치마로 허리에 고무줄이 들어있어 입고 벗을 때 간편했다. 일할 때 몸빼와 함께 애용되었다. 월남파병 군인들이 돌아오면서 선물용으로 많이 사와 월남치마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헤어스타일을 보면 여자들은 파마를 하고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비녀를 꽂은 쪽진 머리를 하고 있다. 다양하게 커트와 파마, 쪽진 머리를 볼 수 있다. (박승석, 1981년 3월 2일)



신랑이 큰상인 일명 '신랑상'을 받았다. 돼지 한 마리로 잔치하고 1인 1반, 잔치반으로 음식을 나눠 먹던 풍속이 완전히 사라졌다. 어려운 시절에도 신랑상·신부상 차림은 최대한 정성스럽게 차렸는데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음식이 점점 화려해지고 다양해진다. 상에 케이크도 올리고 과일 종류나 떡 종류도 다양해지고 전, 찜, 튀김, 볶음 정도의 조리법에서 점차 회, 냉채, 나물류가 추가되고 한 가지 조리법에서도 식재료를 달리한 많은 음식이 소개된다. (박승석, 1981년 3월 2일)



문전제를 지낸 후 음복하는 모습이다. 신랑 박씨가 첫 수저를 뜨고 있는데 할머니, 어머니, 누이 모두 일하다 말고 나와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할머니는 수건을 쓰고 있다. 예전 여자 어르신들은 맨머리로 길을 나서는 법이 없었다. 머릿수건 쓰는 일을 예의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흘렀어도 습관이 남아 머릿수건을 썼다. (박승석, 1981년 3월 2일)



제주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사로 고산까지 출장왔다. 예전 신부 머리는 올림머리 스타일이었다. 이를 위해 예비신부들은 몇 개월 전부터 머리를 길렀다. 화장은 화장품이 다양치 않아 평소보다 화사하게 예뻐 보이게 하는 정도의 화장술이었다. 부케는 아스파라가스 잎과 국화나 카네이션으로 만들었다. (박승석, 1981년 3월 2일)



대청마루에서 '사돈열맹'을 하고 있다. 신랑집 일행이 신부집에 도착하면 신부집은 정중히 집안으로 맞아 상호 인사를 나눈다. 신랑 아버지와 신부의 숙부가 서로 맞절하고 있다. 식사와 술잔이 오가게 되면 자리가 한층 흥겨워진다.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서로 화합하고 친목을 도모하게 한다. 결혼 당일 신랑집과 신부집은 아침부터 하객들을 맞이하기에 여념이 없다. 시장통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붐빈다. 하객들에게 접대하는 아침 식사를 '초불밥'이라 하여 식을 거행하기 전까지 대접한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하객접대 음식으로 곤밥(쌀밥)과 무국, 고기반(돼지고기 석 점, 둠비 한 점, 순대 한 점)에 김치나 간장이 대부분이었다. 마을에 따라서는 몸국, 고사리국(육개장)을 대접하기도 했다. (박승석, 1981년 3월 2일)



면사포와 화려한 화관을 쓴 신부는 만감이 교차하며 거의 먹지 못했다. 지금까지 낳고 자란 정든 집과 식구들을 뒤로하고 떠나기 전 마지막 아침 식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시 후, 신랑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생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1981년, 신창천주교회에서 이대원 신부님의 주례로 혼배미사를 치르고 부부가 되었다. (박승석, 1981년 3월 2일)



천장 백열전구 불을 밝혔다. 어슴푸레한 결혼식 날 새벽 집을 나서기 전 조상신에게 문전제를 지내기 위해 준비 중인 사진이다. 신랑 박승석(신창리, 1953년생) 씨가 친족 할아버지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에는 아버지, 오른쪽에는 아버지의 5촌 삼촌이 서 있다. 부지런도 하지, 장손자 아이가 일찍 일어나 마치 수문장이라도 된 듯, 장난감 칼을 들고 문전상 곁을 지키고 서 있다. 문전신은 서사무가 문전본풀이에서 유래한다. 문전신은 본풀이의 가장 똑똑한 막내, 일곱 번째 아들 녹디생이를 말하며 여타 가내 신들에 비해 가장 중요한 신으로 집안의 모든 대소사와 관련을 맺는다. (박승석, 1981년 3월 2일)



'문전 몰른 공시 엇다'는 속담이 있다. 제주에서는 모든 집안 행사를 문전신에게 먼저 고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에서도 문전제를 지내는 집이 많다. 집안에 따라 아침 일찍 새벽에 문전제를 올리기도 하고 신부집으로 출발할 때 올리기도 한다. 오늘은 혼례 당일, 별일 없이 무사히 혼례를 올리고 편안한 가정을 꾸리게 해달라고 빌었다. 아버지와 친족할아버지는 바지저고리에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를 입어 예를 갖추고 있다. (박승석, 1981년 3월 2일)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주시에서 자취하며 고등학교에 다녔다. 넉넉해서가 아니었다. 어쩌면 농사일, 검질 일이 싫고 또한 떠나는 방법이 공부뿐이라고 생각했다. 꿈이 있었다. 시골에 남는다면 평생 농사를 지을 게 뻔했다. 박씨는 결혼 당시 우체국 공무원이었다. 그러다 교육공무원으로 정년퇴임하였다.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쳤다. 형님은 고향에 남아서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고 지금까지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다. (박승석, 1981년 3월 2일)



마지막으로 앞 머리카락을 고대기에 감아 웨이브를 만들고 있다. 올림머리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핀이 들어간다. 피곤한데, 얼른 잠들고 싶은데 신부들은 녹초가 된 첫날 밤, 아교풀로 붙인 속눈썹 떼어내랴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더듬거리며 실핀 빼내랴 고생했던 기억 하나쯤 가지고 있다. 1970년대 여성복으로는 미니스커트, 미디스커트, 월남치마 등 다양한 길이의 스커트가 유행하고 합성섬유인 저지가 유행했다. 청바지와 청자켓 등의 의상이 젊은이들의 문화라 얘기될 만큼 유행했다. (박승석, 1981년 3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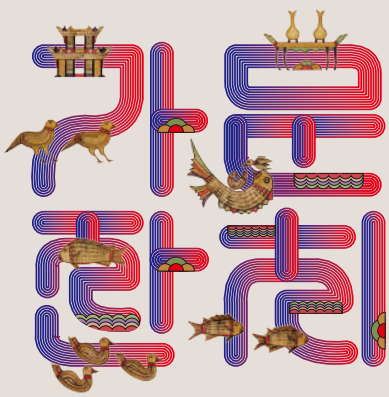


박홍기(수산리, 1938년생)씨는 1986년 2월, 막내 여동생(1959년생)을 시집보냈다. 신랑은 유수암에 사는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큰오빠인 박씨가 아버지를 대신해 예장 검토를 했다. 동생을 몹시 아끼고 사랑했던 오빠는 만감이 교차했다. 떠나보내는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았다. 신랑집 사돈열맹 자리에서 권하는 술을 다 받아마셔 대취(大醉)하고 말았다. 취중에 동생을 보낸다, 만다 하는 작은 소동이 있었다.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모두가 웃게 된다. (박홍기, 1986년 2월)



1986년 5월, 김영철(봉성리, 1961년생) 씨와 김미나(전주, 1962년생) 씨가 고려예식장 폐백실에서 신랑 부모에게 절하고 있다. 제주에는 폐백 풍습이 없는데 신부가 육지 출신이어서 사돈측을 배려했다. 제주에서는 사돈열맹이 끝나고 나서 양가 친척들 앞에서 절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삼일잔치로 식은 예식장에서, 하객 대접은 집에서 했다. 답례품은 주방세제인 '퐁퐁'이었다. 신혼여행지는 신부가 전주 사람이다 보니 제주도 관광을 원했다. 신랑은 학사장교로 군인이었다. 경상남도 삼천포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점차 삼일잔치가 당일잔치로 바뀌기 시작했다. 1989년부터 해외여행 자유화로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호텔에서 호화 결혼식을 하기도 하고 빠르게 결혼풍속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물론 돼지를 잡는 일도 사라졌다. (김영철, 1986년 5월 5일)

제주의 결혼문화 특별전



발행일 2022. 5.
발행인 노정래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6327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일도2동)
Tel. 064.710.7708 Fax. 064.710.7689
디자인/인쇄 디몽

* 이 책자에 실린 사진과 글의 무단개재를 금합니다.